

2007. 5. 21 제167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7. 5. 21 제167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이주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 낭트市の ‘세계 시민의 집’

도시경영·경제

1. ‘절약정보 전화’로 물품가격 정보 제공 (브라질 쿠리치바市)
2. ‘인도는 지금’ 행사 추진 (런던)
3. 시영(市營) 버스·지하철 민영화 검토 (오사카)

복지·문화

4. 육아 가정에 주거비 지원 (도쿄都 치요다區)
5. 당뇨·고혈압 환자에게 무료로 약품 제공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6. ‘그린 모기지’ 정책 제안 (영국)
7. 건강한 노령화 계획 수립 (베를린)
8. ‘소녀의 날’에 행정부처에서의 경험 제공 (베를린)

목 차

도시환경

9. 녹색빌딩 확대를 위해 전담팀 구성 (샌프란시스코)
10. '그린전력 증서' 판매로 자연에너지 발전(發電) 및 이용 촉진 (도쿄)
11. 초등학생 대상 무료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런던)
12. 생태주택단지가 벤치마킹 명소로 부상 (런던)
13. 2010년까지 쓰레기 재활용률 75% 달성 추진 (샌프란시스코)

도시교통

14. 자전거 무료 대리주차 시행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市)
15. 무소득자에게 대중교통 무료 승차권 제공 (일드프랑스주)
16. 'Tempo-30'의 영향 분석 발표 (베를린)

도시계획·건설·주택

17. 양질의 공공디자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영국)
18. 인터넷에 가상마을 구축 (아일랜드 웨스트포트 타운)
19. 마을 만들기 10개년 기본구상 발표 (일본 다나베市)

[벤치마킹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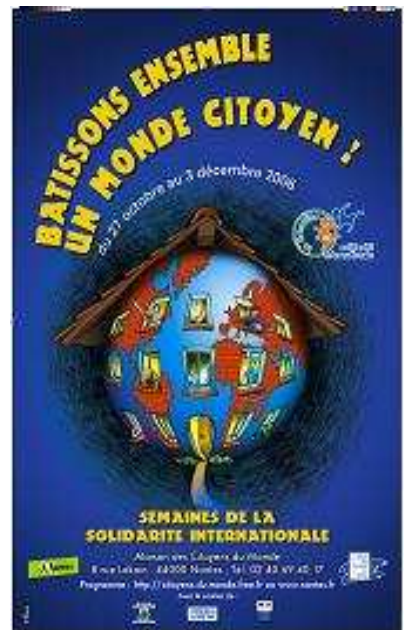
이주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 낭트市的 ‘세계 시민의 집’

<주요 내용>

○ 프랑스 낭트市는 1996년에 이주 외국인을 위한 ‘세계 시민의 집’을 설립해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프랑스로 이주해 온 외국인의 안정된 정착 지원, 낭트 시민 및 기타 외국인과의 교류와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음. 이곳에는 외국인 단체 40여 개와 외국인 관련 시민단체 30여 개가 있으며 낭트 시민과 외국인이 공동관심사를 교류하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음.

-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이 현지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세계 시민 교류 발전계획 수립 및 토론
- 외국인의 현지화에 필요한 시민정신 교육
- 도서·잡지·자료·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자료센터와 전시·영상물 상영·게임·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 운영
- 세계 시민의 협력 강화방안 개발을 위한 외국인 개개인의 경험 교환
-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세계 분쟁에 대한 정보 교환
- 프랑스와 외국의 인권보호 단체와의 연계
- 낭트 시민과 세계 시민의 교류 및 연대 확장
- 세계 지역별로 경제·사회·정치 및 문화 이해
- 시민과 이주 외국인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지식 및 교양 교류



‘세계 시민의 집’에서 주최하는 국제 시민연대주간(Semaines de la Solidarité Internationale) 행사 포스터

- 외국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각종 계획과 방안을 마련함.

- 세계 시민의 집은 매년 국제 시민연대주간 행사를 통해 세계 시민의 동참을 확대하고 있음.
- 낭트市는 세계 시민의 집 활동을 기초로 ‘코스모폴리스’라는 기구를 추가 발족해 각종 외국인 단체와 낭트 시민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함.
- 코스모폴리스는 매년 전시회와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함.

<코스모폴리스 2007년 하기 프로그램>

기간	주제	내용
5월 9일~11일	유럽 예술인의 역할과 중요성	스펙터클, 아틀리에 등
5월 15일~27일	마야문명의 중심 과테말라	전시, 컨퍼런스 등
5월 30일~6월 2일	낭트-시애틀-잭슨빌	전시, 컨퍼런스, 콘서트 등
6월 8일~24일	메커니컬 오디세	사진, 비디오 등
6월 26일~7월 13일	아프리카 말가쉬 지역의 문화	전시, 조형예술 아틀리에 등

(출처: www.nantes.fr/detente/international/cosmopolis/index.asp)

<해설 및 평가>

- 20세기가 산업과 교통의 발달 시대라면 21세기는 세계화로 인한 교류와 국제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진 시기로, 프랑스는 이미 지난 중세기부터 외국인 교류가 빈번했음. 특히 파리市는 19세기부터 외국인의 활동 무대가 됐으며 이들에 의해 파리市의 발전과 명성이 이어지고 있음.
- 네덜란드 출신 화가 반 고흐, 폴란드 출신 과학자 마리 퀴리, 알제리 출신 축구 선수 지네딘 지단, 한국 출신 지휘자 정명훈, 헝가리 출신이자 유대인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처럼 문화, 예술, 스포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 외국인이 두드러진 활동을 함.
- 낭트市의 경우 세계 시민의 집을 개설해 이주 외국인에 대한 ‘관용’(Tolerance)을 넘어 그들의 활동영역과 교류활동 공간을 제공함.

- 지방도시의 경우 대도시보다 보수적이어서 실제로 외국인이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낭트市的의 경우 세계 시민의 집을 통해 외국인이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미래의 국제도시를 준비함.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국내에는 현재 약 55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는 정착외국인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의료정보,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울 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센터 성격이 강한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 및 서울 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이주 외국인 정착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포괄적인 세계 시민의 교류 장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교육·문화·복지·비즈니스 등 폭넓은 성격으로 변화해야 함.
-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위상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의 주요 도시로 성장한 만큼 세계 시민을 포용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해야 하고, 이주 외국인의 특성을 흡수해 한 차원 높은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과거에는 한국인에게 외국인이 이질적인 것이고 외국인에게는 한국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유익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벤치마킹 시행방안>

- 이주 외국인이 서울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주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함. 하지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출신 나라별 분포를 조사해 주요 언어를 최소 10개 정도로 다언어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이주 외국인 대상 서비스의 주 언어로 영어만 사용하고 있으나 영어권에 속하지 않는 나라 출신이거나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각종 안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성숙한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현지화를 도울 수 있는 한국어 무료교육과 한국시민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함.
- 서울시는 현재 ‘서울타운미팅’을 통해 거주 외국인의 생활불편과 애로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 주로 일반 복지 및 행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국제도시 초기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필연적인 절차임.
- 외국 청소년이 우리 문화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미래 한국사회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이주 외국인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를 돕고 한국과 서울의 문화정체성과 생활, 역사에 대해 이주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
 - 외국인 단체와 주민단체 간의 대화를 통해 활발히 교류하며 범세계적 문화 경험을 확대하게 됨.
 - 이주 외국인에게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으로 인한 범죄발생을 막을 수 있게 됨.
 - 각 나라 문화를 존중하고, 인간 존중·연대·인권 등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하게 됨.
- 미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계 청소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이주 외국 청소년의 출신 국가에서의 체류 및 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이끌어 문화 및 경제 교류뿐 아니라 세계 평화 증진에도 기여함.

/홍석기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1. ‘절약정보 전화’로 물품가격 정보 제공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절약정보 전화’(Disque-Economia)를 운영 중임.
 -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식료품, 개인용 위생용품, 세제용품 등 20여 개 상품의 가장 저렴한 가격 정보를 알려줌.
 - 市 홈페이지에서도 가격 정보를 제공함.
 - 실제로 슈퍼마켓 간의 가격차가 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절약정보 전화를 이용하는 시민은 지출을 줄일 수 있음.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9111)

2. ‘인도는 지금’ 행사 추진 (런던)

- 런던시장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2007년 7월 16일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인도는 지금’(India Now)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힘.
 - 행사는 인도 문화 관련 이벤트, 영화, 공연, 음악, 패션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진행될 예정임.
 - 런던시장은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런던에 있는 다수의 인도 커뮤니티와 유대를 돈독히 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런던 내 많은 인도 단체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410)

3. 시영(市營) 버스·지하철 민영화 검토 (오사카)

○ 일본 오사카市는 지하철과 버스 등 시영사업 10개에 대한 경영형태 검토결과를 발표함. 공업 연구소나 시민 병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냈지만 버스·지하철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결정하기로 함.

- 버스·지하철을 민영화할 경우 직원 1700명 이상 감축과 급여 20% 삭감이 예상되며, 10년 후에는 연간 122억 엔(약 952억 원)의 이익이 나지만 市는 10년 간 적자 노선버스 보조와 경로우대 무료티켓 발행 등으로 743억 엔(약 5795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됨.

- 공영기업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직원 785명 감축, 급여 20% 삭감이 예상되며, 10년 후에는 연간 56억 엔(약 437억 원)의 이익이 날 전망이다.

·하지만 10년 간 설비·개보수비 등을 포함해 市에서 2831억 엔(약 2조 208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민영화에 비해 약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됨.

- 오사카市는 시장(市長) 직속의 검토팀을 설치해 2007년 중 버스·지하철 사업에 대한 방침을 정하기로 함.

(osaka.yomiuri.co.jp/tokusyuu/kaikaku/oc70217a.htm)

(osaka.yomiuri.co.jp/tokusyuu/kaikaku/oc70123a.htm)

한줄 뉴스

<일본>

- 정부, 2007년 4월 24일 국가 공무원의 재취업 규제와 능력·실적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 마련
·2011년까지 행정부처에서 낙하산 인사 알선 금지, 재취업 알선 업무는 2008년에 신설되는 관민 인재교류센터로 일원화 등 추진

- 시마네縣, 기와를 만드는 13개 회사 조합의 '세키슈우 기와'를 지역단체 상표로 등록

·지역브랜드를 보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4월 **지역단체 상표 제도** 도입

4. 육아 가정에 주거비 지원 (도쿄都 치요다區)

○ 도쿄都 치요다區는 ‘차세대 육성 주택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육아 가정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문제로 구내에 거주하는 부모 근처로 이사하거나 출산 때문에 구내로 이사하는 가정에 대해 임대료나 주택 용자를 보조하는 제도를 실시함.

- 부모 근처로 이사하는 가정의 경우 부모가 5년 이상 치요다區에 살고 있어야 하고, 출산으로 인해 이사하는 가정의 경우 과거 1년 간 치요다區에 거주했고 태어난 아이 때문에 집이 비좁아 같은 치요다區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함.
- 임신 중의 태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가 있고 연 1000만 엔(약 78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 매월 가족 1인당 1만 엔(약 7만 8000원)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8년이고 매년 첫째 지원액의 10%씩 감액됨.
 - 자녀가 18세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됨.
 - 부모 근처로 이사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월 2만 엔(약 15만 6000원)이 가산됨.
 - 가족 3명이 부모가 사는 치요다區로 이사할 경우, 처음 1년 동안은 매월 5만 엔(약 39만 원)을 받고, 총 8년간 312만 엔(약 24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임.
- 區는 육아 가정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區의 세대 구성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기대함.

(headlines.yahoo.co.jp/hl?a=20070425-00000028-san-soci)

>>> 전문가 검토의견

- 저출산 대책의 핵심과제는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것임. 주거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육아 가정에 대한 주거비 지원사업은 효과적인 양육지원 정책사업이 될 수 있음.
- 서울의 주거비용 수준이 높으므로 주거비 지원은 효과적인 양육지원 정책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양육 관련 주거비용에 대해 주택용자 지원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제공 등을 부분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음.
- 하지만 현재 보편적인 양육지원을 위한 아동수당도 도입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거비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더욱이 급여 규모가 현실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책효과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임.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5. 당뇨·고혈압 환자에게 무료로 약품 제공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는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에게 무료로 약품을 제공하고 집까지 배달해주는 '무료 의약품 배달 프로그램'을 통해 의약품 150만 개를 전달함.
- 市 보건국은 35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으며 이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보건소나 시립 병원을 찾는 환자의 80%에 달하는 숫자라고 밝힘.
-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환자는 정기적인 진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2002년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브라질에서 최초로 리우데자네이루市에서 도입했으며 현재 상파울루 등 다른 市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음.

(www.rio.rj.gov.br)

6. '그린 모기지' 정책 제안 (영국)

- 영국 자유민주당은 주택의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후 변화 방지는 주택에서부터」(Climate Change Starts at Home)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린 모기지'(Green Mortgage) 정책을 제안함.
 - 이 정책은 주택의 난방과 조명, 전기기구 사용, 단열처리 비용을 장기 주택 담보대출제도를 통해 대출받고 절약한 에너지 비용만큼 대출금을 적게 갚아도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자유민주당은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한다면 2050년까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2007년의 6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주택 디자인 관련 법령을 2011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관계자가 밝힘.
 - 이 정책은 주택 난방에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독일의 '파시브하우스'(PassivHaus) 표준을 기초로 함.

(www.planningresource.co.uk/pp/news/index.cfm?fuseaction=FullDetails&articleUID=8071b00c-1495-40a3-b28d-4f6923487cc5&e=1)

한줄 뉴스

<브라질>

- 리우데자네이루市, 리우 기후변화협약의 일환으로 'Live Earth' 콘서트 유치
·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환경 훼손에 반대할 목적으로 호주, 영국, 중국, 미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 국가에서 열릴 예정임.
- 포르투알레그레市, OLPC(One Laptop Per Chil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트북 100대를 초등학교에 전달해 노트북을 이용한 학습효과 실험
-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쿠리치바市를 방문한 123개 외국 사절단 1600명이 대중교통시스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벤치마킹을 위한 협력 제안

7. 건강한 노령화 계획 수립 (베를린)

○ 2007년 4월 26~27일 베를린市에서는 건강한 노령화 관련 문제를 논의함.

- 건강하게 노령화하기 위해 市와 지역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중요 이슈로 정하고, 유럽연합 가입국가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노령화 대처방안은 市가 중점을 두는 중요한 분야임. 특히 市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도 추진 중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4/20/76474/index.html)

8. ‘소녀의 날’에 행정부처에서의 경험 제공 (베를린)

○ 2007년 4월 26일 독일 전역에서 진행된 ‘2007년 소녀의 날’을 맞아 베를린市는, 여학생들이 행정부처, 특히 여성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서에서 경험을 쌓게 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5~10학년 여학생에게 행정부처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줌.

- 2007년 소녀의 날 행사에는, 市 행정부처 직원 자녀가 참가해 부모가 하는 업무를 직접 경험함.
-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건축 관련 부서, 홍보 및 대(對)언론부서, 산림 부서의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교통통제센터에서는 모니터를 통해 베를린市의 교통이 어떻게 통제되고 관리되는지 경험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704/nachricht2635.html)

도 시 환 경

9. 녹색빌딩 확대를 위해 전담팀 구성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市는 2007년 4월 26일 신규 민간 건설사업을 위한 녹색빌딩 기준 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는 '녹색빌딩 전담팀'을 구성함.

- 주요 구성원은 지속가능한 디자인, 부동산 개발, 금융 및 건설 전문가임. 또한 도시계획부, 건물조사부, 환경부가 녹색빌딩 건설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유인 프로그램 마련을 돕고 있음.

- 앞으로 이 조직은 건축물에너지환경인증(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기준 가운데 최소 골드급에 해당하는 신규 건물에 건축허가를 먼저 내주기로 함.

- 녹색빌딩은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이용도를 극대화하고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자연채광과 환기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을 기존보다 16%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짐.

(www.sfgov.org/site/mayor_index.asp?id=59375)

>>> 전문가 검토의견

- 에너지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며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에너지 공급정책에 우선해야 함.

·건축물에너지환경인증(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란 건물에 대해 지속가능성, 물 절약, 에너지 효율, 건축자재, 실내환경 등을 평가해 점수에 따라 4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임. 미국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건축물에너지환경인증(LEED)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샌프란시스코市의 녹색빌딩 전담팀 출범은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문이 건물이므로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보 제공, 기술 지원, 인·허가 행정 지원, 금융 지원 등 그린빌딩 건축 촉진방안을 검토해야 함.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10. ‘그린전력 증서’ 판매로 자연에너지 발전(發電) 및 이용 촉진 (도쿄)

- 도쿄都에 있는 미크시社は 자사가 운영하는 IT 구인정보 사이트에 사용되는 서버의 전력량 205kWh를 자연에너지 발전(發電)을 통해 공급받기로 하고, 전력회사 11개가 출자해 만든 일본 자연에너지 주식회사에서 ‘그린전력 증서’를 구입함.

- 그린전력 증서란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자연에너지로 발전한 전기의 환경 부가가치를 증서 형태로 거래하는 것임.
 - 이 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전기 자체는 기존 방식대로 전력회사에서 공급받지만 거래된 전력량이 자연에너지로 발전한 것으로 간주함.
 - 미크시社가 사용하는 전력을 자연에너지 발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800톤의 CO₂ 배출량 삭감에 기여하는 것임.
- 현재 그린전력 증서를 보유한 기업과 단체 수는 104개며 노무라 홀딩스(590만kWh), 소니(550만kWh), 아사히 맥주(330만 kWh), 홀 네트워크(270만kWh)에 이어 미크시社가 5번째로 큰 규모임.

(headlines.yahoo.co.jp/hl?a=20070424-00000009-imp-sci)

>>> 전문가 검토의견

- 그린전력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 수단 중의 하나임.
-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에너지를 선택하는 그린전력 제도가 아직 시행되고 있

지는 않지만, 대형 에너지공급사를 대상으로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개발 공급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협의 후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RPA: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기업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그린전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해야 하는 사회·경제적인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문부터 그린전력 도입을 위한 사전 조사 및 연구 등 준비가 필요하며,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11. 초등학생 대상 무료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런던)

- 런던시는 앞으로 3년 동안 런던 북부 햄스테드 히스(Hampstead Heath) 공원에서 초등학생 수천 명에게 무료 생태체험 교육을 실시함.
- 복권기금, 왕립 조류보호협회, 런던시가 예산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조류와 야생동물 관찰, 수생태계 탐사, 숲 견학 등을 위해 생태 해설가 4명과 공원 자원봉사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 공원 인근 자치구의 68개 초등학교 학생 7000여 명부터 교육하기 시작하며, 점차 런던 시내 초등학교로 참여 범위를 넓혀갈 예정임.
- 시는 체험학습 목표를 지식 습득은 물론 깨끗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면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둬.
-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2007년 6월부터 시작해 학기 중 운영을 목표로 하며, 현재 산책로 정비, 연못 관측대 등 교육장비 설치작업이 진행 중임.

(www.london.gov.uk/londoner/07may/p15b.jsp?nav=green)

12. 생태주택단지가 벤치마킹 명소로 부상 (런던)

- 런던시 템스미드(Thamesmead) 지역에 세워진 소규모 생태주택단지가 런던시장과 영국 부총리를 비롯해 프랑스와 캐나다, 중국, 스페인 등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소가 됨.
- 친환경주택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기존 인식을 과감히 바꾼 에코파크 주택단지(Gallions Ecopark)는 독립가옥 29채와 연립주택 8가구의 소규모 개발로 투자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데 성공함.
- 네덜란드의 지속가능성 관련 전문가와 손잡고 각종 에너지 절약·충전·재사용 시설, 물 절약 시설, 폐기물 최소화 시설을 두루 갖춰 사용자가 환경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계함.
- 주택단지 주민은 에너지 절약 등으로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음.



런던 남동부지역에 위치한 친환경주택단지

(www.bbc.co.uk/london/content/articles/2007/04/05/ecopark_feature.shtml)

(www.gallionsecopark.co.uk)

13. 2010년까지 쓰레기 재활용률 75% 달성 추진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市는 2007년 4월 25일 市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69%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이는 2006년의 67%보다 높은 수치며 2010년까지 재활용률을 75%까지 높이겠다고 밝힘.
- 市 환경부는 2005년 쓰레기 발생량 197만 톤 중 66만 톤을 매립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퇴비화·재사용했다고 밝힘.
 -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매립되는 쓰레기 가운데 65%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함.
- 市는, 매립되는 쓰레기 중 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재활용률을 78%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www.sfgov.org/site/mayor_page.asp?id=59337)

도 시 교 통

14. 자전거 무료 대리주차 시행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市)

-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市는 교통혼잡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무료 대리주차(Valet Parking)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
- 무료 대리주차 제도가 시행되는 곳은 주말마다 농산물 시장(Farmer's Market)이 열리는 곳으로 자전거 대리주차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안심하고 자전거를 세워 둘 수 있어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고, 도로 혼잡도 많이 완화됐음.
 - 이 서비스는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확대되고 있음.

○ 산타모니카市는 2008년 여름까지 자전거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다운타운 자전거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새 자전거 센터는 무료 대리주차 서비스 외에 자전거 수리, 부품 교체, 자전거 관련 교육 등의 부설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임.

- 이 서비스로 근거리 통근자나 인근 지역주민의 자전거 이용률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市 관계자가 말함.

(www.latimes.com/news/local/la-me-bikevalet23apr23,1,1072842.story)

한줄 뉴스

<베를린>

- 2007년 4월 15일~20일 교류협력 도시인 모스크바市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세미나 개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통합 및 장애인 이동성 증진을 위한 베를린市의 전략 강조

- 市 협력기업들 2006년 한 해 동안 1조 2000억 원 흑자 기록

·市 경제부 장관은 市와 협력관계를 맺은 기업의 흑자 폭이 매년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

15. 무소득자에게 대중교통 무료 승차권 제공 (일드프랑스州)

○ 2007년 3월 31일부터 일드프랑스州는 무소득자 수당을 받는 사람 15만 명과 그들의 가족 35만 명에게 버스, 트램웨이(tramway), 지하철, 기차 등 파리 시내를 관통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

- 무료 교통정책에 연 87만 유로(약 10억 89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됨.

- 저소득층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75% 할인해 준 기존 정책을 확대한 것임.

(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2&document_type_id=2&document_id=28620&portlet_id=826)

16. 'Tempo-30'의 영향 분석 발표 (베를린)

○ 베를린市 도시개발부 잉게보르그 용에-레이어 (Ingeborg Junge-Reyer) 장관은 2007년 4월 4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5년 가을 베를린 주요 도로망 16구역에 주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도록 표시한 'Tempo-30'에 따른 영향을 발표함.

한줄 뉴스

- 영국 웨스트미들랜드 지역, 녹지공간의 네트워크 향상 등 '향후 20년 그린 비전'의 상세 계획을 담은 「그린인프라」 책자 발간

- 파리市, 2007년 6월부터 공공장소에서 초고속 무선 인터넷 무료 사용 추진

- Tempo-30 속도규정 표지판 설치 후 도로변 주민은 대기오염 및 소음 부담이 경감됐고 교통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힘.
- Tempo-30의 영향 분석은 선정된 표본지구에서 도입 1년 후 교통속도에 끼치는 영향, 소음과 대기오염, 사고 상황을 종합해 평가함.
 - 운행속도 감속으로 소음과 미세먼지 및 산화질소 수치, 교통사고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市 도시개발부 장관은 모든 운전자가 Tempo-30을 이행한다면 환경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고, 규정 준수를 감시한 경찰의 협조에도 고마움을 표시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704/nachricht2609.html)

17. 양질의 공공디자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영국)

○ 영국의 그라운드워크(Groundwork)와 지역경제전략센터(The Centre for Local Economic Strategies)는, 지역의 공공환경 향상은 경제적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영국 미들즈브러의 리버사이드 파크 산업지역, 체서의 윈포드 산업지역 등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간단한 조경과 조명, 안전 조치가 사례 연구 지역 4곳의 상점가 경제를 활성화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일자리 창출과 고객 방문 빈도 증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짐.

- 지역경제전략센터는, 공공디자인 향상이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민간의 투자 필요성을 강조함.

(www.planningresource.co.uk/pp/news/index.cfm?fuseaction=FullDetails&articleUID=c6ca63e8-0ce5-499c-aa0f-1382714f9479&e=1)

>>> 전문가 검토의견

- 양질의 공공디자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그러나 사례에서처럼 산업지역일 경우 경제적 침체 원인이 단순한 외부환경 문제가 아니라 탈산업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로정비 차원의 공공디자인에 앞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 부여가 중요함.

- 서울시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적 전략과 더불어 지역 성격에 부합하도록 차별화해 공공디자인을 시행해야 함.

/백승만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smbaek@sdi.re.kr)

18. 인터넷에 가상마을 구축 (아일랜드 웨스트포트 타운)

- 아일랜드의 역사도시 웨스트포트 타운(Westport Town Council)은 마을 전체 모습을 담은 가상마을을 인터넷에 구축해, 이를 도시설계와 도시계획과정에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1단계 과정에 있다고 밝힘.
 - 가상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온라인 디지털 타운으로 타운 내 개발지역과 진행 중인 개발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
 - 도시계획과정과 컨설팅, 도시디자인의 관리를 유용하게 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현재 이와 연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관계자가 말함.

(www.rudi.net/node/16009)

19. 마을 만들기 10개년 기본구상 발표 (일본 다나베市)

- 일본 다나베(田辺)시는 2007년부터 10년 간 추진할 마을 만들기 제1차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방재 강화, 환경 창조, 산업 진흥, 지역 재생 등 4가지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함.
 - 기본 이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로 정하고, ‘헤이세이 합병’(平成 合併) 전에 수립한 시·읍·면 기존 건설계획을 바탕으로 ‘자연과 역사를 살린 신지방도시 다나베’를 市의 미래상으로 정함.
 - 6개 시책은, 사람을 육성하는 마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 활력이 넘치는 산업마을, 쾌적한 환경마을,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마을임.

- 사람을 육성하는 마을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 지원 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 보급 등을 도모하기로 함.
- 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에서는 재해에 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물과 재해 구조시설을 진단하고 보수하며, 해일 재해 예측도를 기본으로 호안(護岸) 공사를 추진해 해일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headlines.yahoo.co.jp/hl?a=20070420-00000005-agara-130)